

일본의 지역경제견인사업과 지역미래견인기업

- 지역의 특성을 활용,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「지역경제견인사업」과 이 사업을 지원하는 「지역미래투자촉진법」이 실행에 옮겨짐
- 이에 의거하여 2,148개의 지역미래견인기업이 선정되고, 이들 기업들에게 각종 직간접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
- 이는 각 지역에 다양한 대기업공장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, 오히려 잠재력을 지역으로부터 살려내고 이를 지역 외, 해외로 공격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발상에 근거하고 있음

□ 배경

-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가운데, 일본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가 경제산업성에서 이루어져 왔음
 - 결론적으로 각 지역에 다양한 대기업공장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임
- 오히려 지역에 잠들어 있는 잠재력을 지역으로부터 살려내고 이를 지역 외, 해외로 공격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발상에 기초하여 지역미래투자법을 제정하기에 이름
 - 지역의 특성을 활용,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「지역경제견인사업」, 이 사업을 지원하는 「지역미래투자촉진법」이 실행에 옮겨져 2017년 12월 말에는 「지역미래견인기업」이 선정됨
- 일본 경제산업성은 동 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어지도록 하고 있음

□ 지역경제견인사업의 현황

- 지역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미래견인기업 2,148개사가 공표됨
 - 부가가치의 창출, 성장성, 지역경제의 이음매 역할 등을 정량적인 지표로 평가한 외에, 지자체나 상공단체, 금융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됨
- 지역미래투자촉진법은 선정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으나, 법률을 제정하여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, 기업을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시책을 설명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없는 제도임

□ 지역미래기업에 대한 지원

- 예산, 세제, 금융, 규제완화 등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함
 - 구체적으로는 선진적인 사업에 필요한 설비투자에 대한 감세조치, 중소기업과 제휴하여 실시하는 전략분야에서의 설비투자에 보조, 일본정책금융공고에 의한 융자제도 등임
 - 또 신수출대국 컨소시엄에 기초한 해외전개지원이나 전문인력의 채용지원 등 폭넓게 활용함
- 이외에 자치체나 산업지원기관에 선정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주지시킴
 - 이 중에는 선정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는 움직임도 있어 지원의 폭이 확대되고 있음
- 이와 같은 지원조치를 전달하기 위해 메일 매거진에 더하여, 상담에 일원적으로 응하는 윈스톱 창구로 「지역미래투자촉진실」을 지방경제산업국에 설치하는 동시에, 도도부현별 담당자인 「지역미래컨시어지」를 설치함
 - 각 선정기업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시책의 활용을 위한 설명을 적극 실시하는 동시에, 과제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새로운 시책의 기획·입안·실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

□ 역내와 거래의 이음매

- 선정기업에게는 선정증을 수여하는 동시에 로고마크 사용을 권하고 있음
 - 우선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기대
 - 또 선정기업은 지역외의 수요를 흡수하거나 역내 기업으로부터 조달함으로써 지역 내외 거래의 이음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임
 -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여 농업·지역상사 및 제 4차산업혁명 관련, 관광·스포츠, 문화, 도시 조성, 건강·복지 분야 등 시장이 커지는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견인

□ 지역미래견인기업 서밋


- 2018년 4월에는 후쿠시마현 아이즈 와카마쓰(会津若松)시에서 지역미래견인기업들의 첫 미팅인 「지역미래견인기업Summit in 아이즈 와카마쓰」를 개최함
 - 선정기업에게는 산업지원 관련기관의 노력을 알리는 장이 되고, 산업지원기관에는 선정기업을 한층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음
 - 또 선정기업을 방문하고 있으면, 거래처의 개척이나 공동연구·사업을 시야에 넣고 기업 간 교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

- 이와 같은 선정기업이 한곳에서 만나, 교류를 심화함으로써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음
 - 나아가 서미트를 실시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주목하게 되고, 선정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든지, 산업지원기관이 선정기업을 지원하는 움직임이 가속화 되기를 기대하고 있음
- 이와 같은 행사를 와카마쓰시에서 개최, 함께 PR의 특산물 판매를 실시하여 아이즈 지역의 품문피해를 불식하고 PR기회로 삼는 것도 큰 목적의 하나임

□ 산업지원기관과의 밀접한 제휴

- 지역미래투자촉진법은 지자체에 의한 기본계획이 185건 책정되어 사업자에 의한 사업계획도 '18.4.13일 시점에서 총 468건이 도도부현지사의 승인을 받아, 총 667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음
 - 이 중 182개 기업은 지역미래견인기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음
- 그러나 지역미래투자촉진법에 관한 철저한 주지, 지역미래견인기업들과의 대화 등 아직 실시해야할 것은 있음
 - 사업자의 니즈에 대응한, 세밀한 원스톱 상담창구에서의 대응이나 산업지원기관과의 밀접한 제휴에 의한 관련 지원시책을 충실히 함으로써,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종다양한 사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지역에 큰 파급효과를 주도록 지원해나가고 있음
 - 이에 더하여 시책의 실시상황 등의 팔로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필요한 재검토작업도 병행해나감

□ 시사점

- 글로벌화와 로컬화를 포함하는 글로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필수적임
- 이에 각 지역에 다양한 대기업공장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, 오히려 잠재력을 지역으로부터 살려내는 데 초점을 맞춘 일본의 지역경제견인 사업 모델은 우리나라에게도 유효함
- 그 동안 우리도 그동안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지만, 차제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고, 지방정부와 산업지원기관과의 밀접한 제휴 하에 한국판 지역미래견인 기업을 육성하여 글로컬화와 제4차 산업혁명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음. 

<참고자료>

경제산업성, 『지역미래견인기업 vol.2』 (2018년 5월 9일) <https://meti-journal.jp/p/265>